



대전 정치권, '2024 시무식' 갖고 총선 승리 다짐

한동훈 “대전은 역전 승리의 상징”…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현충원 참배

대전지역 여야 정치권은 29일 ‘2024 시무식’을 갖고 오는 4월 10일에 치뤄지는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올해 첫 지역방문으로 대전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0일 이후의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의 상대조차도 우리가 더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건 속으로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은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선열들의 삶과 죽음을 배우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24년 새해 첫 일정으로 대전현충원 참배와 신년 인사회를 갖고 2024년 총선승리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나는 혁신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런 자신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혁신을 요구하겠다”며 “그 혁신의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다. 그 과실은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지방 일정으

로 대전에 처음 온 이유는 대전이 우리 당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며 “대전은 우리 당에 언제나 역전 승리의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의 상대조차도 우리가 더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건 속으로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은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선열들의 삶과 죽음을 배우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24년 새해 첫 일정으로 대전현충원 참배와 신년 인사회를 갖고 2024년 총선승리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박병석 의원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당과 후보가 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삶이 고달픈 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들의 진정한 친구와 동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역설했다.

박병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자들은 비판만 하면 안 된다. 경청하고 비판하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며 “도단에 빠진 국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가 분열하면 겹찰독재, 남북관계, 민생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민주당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며 “분열은 패배자의 언어이고 단결은 승리자의 언어다”는 말로 단결을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은 “단결된 힘으로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윤석열 검사 드레 정권 끝장내고 도단에 빠진 민생과 대한민국을 구해내자”는 말로 새해 각오를 다졌고, 장철민 의원은 “지난 2년은 분노의 시절이었다. 분노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올 해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분노를 딛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금산군에 친환경 양수발전 시설 들어선다

김태흠 지사, 기자회견 통해 “지역발전 등 위해 에타 신속 통과에 행정력 집중”

충남도는 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에타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양수발전은 전력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탄소중립경제 실현은 물론, 그동안 지역발전 등에서 군민들이 느꼈을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8일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이 전국 6개 에타대상 사업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며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에타 진행상황에 따라서 2035~2038년까지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 1516m²에 금산군 전체 사용량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500MW 규

모의 양수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은 하부댐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저장한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상부댐으로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기는 낮시간에는 태양광과 풍력에서 광전생산되는 전력을, 밤 시간에는 유류전력을 활용하는 민물 탄소중립경제를 견인할 전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부는 금산군 에타대상 사업지에 대해 주민수용성이 높고, 하부댐 설치 예정지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어 안정적인 유량 확보가 가능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송전선로(무주-금산)가 지나고 있어 민원 발생 소지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봤다.

주요 시설은 상·하부댐, 수로 터널, 지하발전소, 육외변전소 등이며, 총 1조 546억 원의 사업

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양수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면 향후 50년간 총 493억 원의 지원금, 지방세 수입 350억 원, 관광수익 5000억 원, 직접 고용 120명 등 420여 명의 인구증가가 기대된다”며 “인근의 수려한 금강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도 가능해 총 1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수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성격 등

C-Lab
청년마음건강연구소

문의)
네이버 블로그/인스타 DM
메일 - clablab_10@naver.com
문자 전화 - 070-8098-1834

“해양경제의 거점도시로 발돋움”

가세로 태안군수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희망찬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으며,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께 시민으로서 일 크게 성취하시고, 기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태안군은 2023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들의 저력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눈에 띠는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6만여 군민 여러분의 노력과 성원 속에 ‘50년의 숙원’ 인흥진성과 백화산, 삼선리 군사 보호구역 해제를 가시화했으며, 태안읍성 등문화복원을 마무리해 읍성의 600년 얼을 되찾았습니다.

2024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태안이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과 ‘태안고속도로 건설’ 등 광개토 대사업 추진에 힘쓰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및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해권 해양경제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태안의 역동적인 2024년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모쪼록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기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회 정립”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하는 멋진 한 해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해 서산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미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시민 여러분의 믿음이 없었다면, 제9대 의회가 바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전심전력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의 힐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큰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긁어 죽였습니다. 백(百)의 이론보다 천(千)의 융변보다 만(萬)의 회의보다 풀한 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저의 의정활동 좌우명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매일 기념하며 새기며, 갑진년(甲辰年)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고단한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백의 이론, 천의 융변, 만의 회의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적 만드는 동구, 르네상스 시대”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2024년 갑진년(甲辰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청룡의 청량하고 신성한 기운을 듬뿍 받아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비상하시길 기원합니다. 동구를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만들자는 약속과 함께 시작한 민선8기가 3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2024년은 계획을 보다 구체화 하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성과를 시민사회에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성장 동력을 발판으로 동구 르네상스 시대 완성을 위해 비상하는 도약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동구의 미래는 ‘교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기)청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사업은 영어교류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코딩 수업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와 과학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 개관 예정인 (가칭)동구 글로벌 아카데미와 함께 동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도시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호의 가치는 확장하고 문화, 예술, 체육 인프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춤출한 맞춤 돌봄을 추진하여, 마음까지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기적을 만드는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시다!

저도 변함없이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1천여 공직자와 함께 뛰겠습니다.

“온고지신 자세로 군정목표 달성”

박범인 금산군수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과 지혜, 용맹함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 모두의 기정에 건강과 풍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의 비전을 공유하며 열심히 일하고, 의미 있는 성과로 군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한층 높여 주셨습니다.

올해는 민선8기 출범 3년째가 되는 해로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각오로 군정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고향, 금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키우며 밝은 미래를 열어갈 때입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주요 정책들이 하나하나 기시화되는 중요한 시기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금산군민들의 행복을 키우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도전에 함께 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천하는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높은 뜻 펼치시고, 기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의회 힘쓸 터”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은 동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입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바라는 모든 소망이 지켜지고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은 인플레이션에 심화되었으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그 여파로 한국 경제 또한 고불기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진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민생활의 안정화 등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활짝 열린 의회, 살기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는 2024년 시민 여러분과 살기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힘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때 나옵니다. 2024년에도 의회는 임기 첫해의 초심을 잊지 않고, 잘못된 조례와 불합리한 관행을 비��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원칙을 중요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는 오직 시민들이 가진 원칙과 자대로 운영해 시민 여러분께 을바른 의회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당이면 집행부에 협력, 야당이면 둘지 마 반대하는 행태는 과감히 단절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공주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처럼 시민 여러분가정에도 비상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반드시 실현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기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입니다.

전설에서는 용이 도를 깨우치면 비늘의 색이 초록색으로 변해 청룡이 된다고 합니다.

청룡은 4방위를 호위하는 사신 중 동쪽을 지키는 존재로 사신들 중에서도 가장 존엄하고 고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올해엔 승천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우리 대덕구가 융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을 흘들림 없이 추진하고 내실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구민분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구의 정책이 지방 행정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임하는 공직자의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를 ‘불망초심(勿忘初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처음에 품고 디딤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결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덕구 공직자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사정으로 인해 구 핵심사업의 정상 추진에 빨간 불이 예상되니, 허리띠를 줄리며는 자구책 마련으로 원활히 구정을 운영하여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신년사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해로 만들 터”

김돈곤 청양군수



2024년 갑진년 새해, 청룡의 해가 우리 앞에 빛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청룡은 동쪽(좌청룡)과 별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대변합니다. 또한, 힘과 행운을 부르고자 자유로움과 정의성을 갖추었으며, 공동체를 잇는 연결고리기도 합니다.

저는, 2024년 우리 군정의 지향점을 ‘행복 100세,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해’로 정했습니다. 시는 사람과 오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나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으로, 모든 군민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사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통, 주거, 돌봄, 문화, 일자리 등 각종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면서 지역발전 중심의 역점시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미래전략과 관광진흥과를 신설하고 투자유치 및 관광정책 전담팀 등 5개 팀을 새로 설치했으며, 기반 산업 투자유치와 인구 증가를 위한 미래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농업정책과에 축산업부를 이관해 농정축산으로 승격함으로써 청양농업의 일관성과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을 위한 행정력의 집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합심해 수없이 다가오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위대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도약, 중단없는 성장을 반드시 이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군민의 손을 굳게 잡고 모두가 행복한 청양군의 활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초석 쌓기 위해 의정역량 강화”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



푸른 용이 승천하는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군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많은 군민들에게 시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련 가운데에서 희망도 보았습니다. 많은 지원봉사자들의 손길과 더불어 한여울 떠약볕에서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린 군민들의 의지는 희망을 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청양을 사랑하는 군민 한분 한분의 자발적인 동참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아낌없는 희생과 동참에 청양군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2024년 청양군 의회는 변화하는 청양의 초석을 쌓기 위해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현장에서 늘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혁신과 발전을 통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뜻깊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위기를 돌파해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환기의 시대적 소명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새해 구정 운영의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성성(衆心成城)’으로 정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루고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견고한 성과 같다는 뜻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유성의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1000여 유성구 공직자도 다 함께 마음을 합치면 견고한 성을 이룬다는 중심성(衆心成城)의 뜻을 믿고 기슴에 새기며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여 협력과 상생의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작은 것을 바꾸면 전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의 자세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하늘로 비상하는 용의 기운으로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기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구민의 뜻 받는 열린 의회 구현”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기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제9대 서구의회는 지역 내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조례안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안, 5분 자유발언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힘써왔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20명의 의원은 연구단체 활동과 토론회, 지역 현장 등

“지역 의제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서 답 찾겠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역 의제를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겠다며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시민이 필요로 하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래 의장은 “제9대 의장으로 취임 후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의정 구호를 만들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시민들 목소리에 경청하고 시민들과 소통한 지 1년 6개월여 그간 의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늘 고민해 왔다.”며 “각각의 의견 수렴과 협치를 통해 각종 정책의제들을 숙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 결실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저를 포함 22명 의원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대한 시민 월세가 쓰이는 정책에는 냉철한 견제·감시로 효과성을 제고시켰다. 대전 발전과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에는 혁신적인 정책 제언에 적극 나섰다.”며 “회기를 거듭할수록 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믿음에 보답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장으로부터 2023년 회기운영 성과와 2024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제9대 의회 1년반 동안의 성과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문화 활성화로 지역경제·상권 부활 촉진
대전은 교통과 과학기술의 중심 도시이면서 대표적인 소비 도시 특성도 갖고 있다. 대전의 전체 사업체 중 50% 정도가 서비스업으로 문화관광사업 활성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노잼’ (No+재미) 도시로는 유쾌하지 못한 별칭을 갖고 있었다.

제9대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이를 타개할 토대 만들기에 집중했다. 그 결과 ‘대전 0시 축제’를 단일 행사 최다 방문객 110만 명이라는 역대급 흥행으로 이끌어 대전을 ‘풀 잼’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의회는 축제에 앞서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지역경제와 상권의 부활에 필요한 마중물을 마련했다.

○지속 가능한 대전 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

전 세계는 기술혁명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 삶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5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면 대전을 넘어서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지역경제와 상권의 부활에 필요한 마중물을 마련했다.

그 중 대표 사업이 양자산업이다. 대전은 국내 양자 관련 기술 전문인력의 약 47%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기반이 탄탄하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이 가진 기반을 토대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조례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

인구 구조 변화, 소득 불평등, 교육 격차 등의 여파로 새로운 형태의 복지 시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회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주민의 원정과 생활안전망을 개선하는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가 있다. 국내 등록 장애인의 80% 이상이 후천적 장애다.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대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현대사회 정보 편의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는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등 총 2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경제·감시·협력·균형 이뤄 대전 발전 촉진

제9대 의회 출범 후 아홉 차례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고 193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면서 76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교육행정·건설교통·환경복지 등 9개 분야에 걸친 43회의 각각의 시정 질문과 54회에 걸친 자유발언 등을 통해 대전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집행부와 경제·감시·협력·균형을 유지하며 의회의 모든 역량을 발휘했다.

○충실히 사전조사, 올바른 시정 방향 제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66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다.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원년의 해로 현 집행부가 낸은 기간 시정을 잘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조치수역할을 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선8기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헤치며 총 574건(운영 28, 행자 132, 복합 110, 산건 151, 교육 153)을 질의했다.

특히, 2024년에 착공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무기 선 친환경 수소트램으로 선정한 방식의 적절성과 착공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했다.



대전예술의전당 자체 제작 오페라 업체 선정 부실, 북대전 악취 문제, 사업본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카드 집행률, 임시보관 상태로 방치된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에 대해 강도 있는 질의로 광역의원의 면모를 보여줬다.

대전시의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다수 의원들이 현 대전시장과 같은 당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부 우려를 일시에 해소했다는 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식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점은 우리 의원들이 성찰해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대전시의회를 이끌어갈 운행방향과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민 목소리에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겠다.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시민이 필요로 하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

체계적인 입법과 수준 높은 정책지원을 발휘하고, 시민이 납부한 공적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방대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의원 역할을 강화시키고 경제·감시 장치가 상시 작동하는 움직이는 의회를 구현하겠다.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입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집행부 종속 등으로 지방의회가 지방 소멸·자율·고령화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입법기관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경제·감시·협력·균형 이뤄 대전 발전 촉진

제9대 의회 출범 후 아홉 차례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고 193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면서 76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교육행정·건설교통·환경복지 등 9개 분야에 걸친 43회의 각각의 시정 질문과 54회에 걸친 자유발언 등을 통해 대전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집행부와 경제·감시·협력·균형을 유지하며 의회의 모든 역량을 발휘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선8기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헤치며 총 574건(운영 28, 행자 132, 복합 110, 산건 151, 교육 153)을 질의했다.

특히, 2024년에 착공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무기 선 친환경 수소트램으로 선정한 방식의 적절성과 착공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했다.

또한, 인사권 독립 시행 후 예측되는 업무량을 측정, 16개

타·시도의회 조직과 업무 특성을 비교·분석해, 시민소통 담당관, 홍보소통 담당관을 신설하고, 복수직렬 직위를 조정해 제한된 인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선했다.

○정책연구회 활성화, 의원 전문성 제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의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역량이 넓혀질 때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감시도 가능하다.

대전시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관심 분야별 정책연구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토론회를 열고 연구과제를 수행해 의정 역량을 키우고 있다. 대전시의회 전체 의원의 82%가 연구회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기업유치연구회, 지역인재육성대전산업발전연구회, 대전체육발전을 위한 연구회, 도시미케팅연구회, 지방의회권역대방안 연구회에서 축적한 연구활동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대전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제시, 부적절한 집행부 정책 개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외공부출장 논란이 있기도 했다. 사전심사 강화와 추후 성과보고 등을 정례화할 생각은.

○국외공부출장 논란, 의정활동 성과로 볼식

대전시의회 의원 공부국외출장은 대전시의회의원 공부국외출장조례에 의거 사전 심의를 받는다.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출장에 필요성, 적합성, 출장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한다.

또한,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국외출장계획, 회의록, 결과보고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출장의 목적과 의정활동 접목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한다면 외유성 논란은 줄어들 것이다.

○시민 숙원사업 해결로 부정적 시각 해소

지난 8월 트램 선진지 시찰은 20여 년 동안 자리를 맴돌았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세월 동안 관련 기술들은 발전하고 에너지 수급 상황도 급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고민하며 집행부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의회의 트램 선진지 시찰은 당연한 행보다. 이에 힘입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드디어 2024년에 첫 삽을 뜨게 됐다.

1조 409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완공 때 까지 교통혼잡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제274회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트램 선정 방식, 척공 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지적하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북지환경위원회는 시드니 척추센터 시찰 경험을 살려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앞으로도 국외공부출장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성과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겠다.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시

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시민과 양방향 소통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지역의 복잡·다양한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협력을 통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 단순한 일방향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설명해 주는 양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등 재난 사고 현장,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악취 현장,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진 수급 문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뉴미디어 활용 세대 간 소통 강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의견 청취와 홍보로 세대 간 정책 쟁점 현상 없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론회, 간담회 개최시에는 사전에 인터넷 통해 공지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카드뉴스·쇼츠영상·조례웹툰 등 새로운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해 복잡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여 의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켰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회교실·시민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해 왔다.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박수 소리보다 소나기 소리에 귀 기울여

2023년 의정활동 목표를 “동심동덕(同心同德)”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 세우고 21명의 동료의원과 시의회 구성원 모두 다 함께 일치단결해 하나의 마음으로 의정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 비판의 소나기도 맞아왔다. 이 또한 의회를 아끼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기한 것으로 안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초심을 잊지 않고 박수 소리보다 소나기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며 시민이 뽑아준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들 꿈 펼치고 성장하는 기쁨의

2024년은 우리에게 더욱 빛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 고민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더 나아가는 힘을 발견했다.

새해에도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순간을 마련해 나가겠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대전 시민 모든 가족이 풍요롭고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꿈을 펼치고 도전하며 성장에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한다.

김정환 기자

●정정●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 3일
오후 3시 대
전 컨벤션 센
터에서 열리
는 2024 교육
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10개 언론사 방문



박희조 동구청
장 = 3일 오전
9시 35분부터
신년맞이 10
개 언론사 방
문에 나선다.

市 확대간부회의



이동한 부구청
장(중구청 장
권한대행) = 3
일(수) 오전 9
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市 확대간부회의' 참석.

유관기관·단체 방문 행사



정용래 유성구
청장 = 3일 오
전 10시 신년
유관 기관·
단체 방문 행
사(유성경찰
서-유성소방서-유성선관위-
대전시선관위)에 참석.

확대간부회의 주재



최충규 대덕구
청장 = 3일 오
전 9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 돌파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작년 1월부
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이 1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작년 28
일 기준 1억 156만 원으로 총 775명이
동참해 1억 원을 돌파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부자들의 적극
적인 참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대전 서구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와 함께 단
계혜택을 제공되며, 가장 인기 많은 단
계혜택은 옥토진미 쌀, 참기름 드레싱 세
트, 한과 세트 등이다.

서철모 청장은 "보내주신 성원에 깊
이 감사드리며, 대전 서구 발전을 위해
기금사업을 알차게 준비해 기금 운용
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
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연
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 30% 범위에서 단
계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장우 시장과 공직자들 시무식 갖고 새해 업무 돌입

갑진년 새해 일류경제도시 향해 전진



이장우 대전시장과 공직자들은
2월 오전 11시 시청 대강당에

큰 도약을 다짐했다.

이장우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4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비상하는 대전을 만들
겠다"라고 강조하며, "치밀한 전
략과 철저한 준비, 대답하고 신속
한 행동, 광활한 도전으로 일류 경
제도시 대전의 길을 개척해 나가
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시대와 정권
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대전의 2048 그랜드플랜을 바탕
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대전
의 모습을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변화에 헌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개척
한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정신으로 일류도시 대전을 원성
하는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
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많은 변화
와 성과를 이루어낸 공직자들의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갑
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
께 하기를 기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시무식에 앞서
시 간부공무원과 함께 보훈공원
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
다.

김태선 기자



대덕구, 2024 사자성어 '물망초심(勿忘初心)' 현판식

공직자들 강한 의지와 다짐 담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2024
년 구정 운영의 길잡이가 될 사자
성어로 '물망초심(勿忘初心)'을
선정하고, 2일 구청 본관에서
'2024년 사자성어 현판식'을 진
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자성어는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39개 사
자성어 중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최충규 대덕
구청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덕구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
학습원장, 노조위원장, 사자성
어 제작자, 직원 등이 참석, 처음
지난 마음을 잊지 않고 대덕 발
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
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2023년
은 '생생지탁'이라는 사자성어
뜻 그대로 내 일상이 즐거운 대

덕구'를 만들기 위해 대덕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타개하며 열심
히 달려온 한 해였다면, 2024년은
'물망초심(勿忘初心)'의 마음으
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취임하면서 구민들
과 약속한 '즐거운 대덕구'를 만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동구, 구민 대상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 30% 할인

사회적 배려층 사용료 감면율 30%로 확대 및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 2자녀로 완화

동구민들도 2024년부터는 상
소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구민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디자녀가정
할인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상소오토캠핑장 관
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고 2일 밝혔다.

구는 사용료 감면율 및 감면 내
용을 확대하고 운영자 측 사용료
반환 기준 내용을 추가하는 등 구
민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
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
리·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에 나
섰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에 이어 12
월 개정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장애인, 수급
자,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층과 다
자녀가정 감면율이 기준 20%에
서 30%로 확대됐으며, 구민도 감
면대상자로 추가돼 시설 사용료
를 3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은 3
명 이상의 자녀에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사유 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
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민으
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구민
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동구가 다자녀가정이 아이 키우
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대덕구, 올해 국·시비 3641억원 확보

최 구청장 "구민 체감삶의 질 향상 위해 밸로 뛴 결과... 올해도 최선 다할 것"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지난해
12월 15일 확정된 올해 본예산
5525억원 중 국·시비 보조금으로
약 364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는
연초에 개최한 국·시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와 대전시를 수시로 방문해 현안사
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

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밸로 뛴
는 행정을 펼친 결과이다.

국·시비 보조금은 2023년 대비
24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비
2113억원 △군형특별발전 1489억원
△기금 106억원 △시비 1274억원
이다.

구는 올해 △대청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고택 활용사업 △아영
장안전 및 활성화 지원 △기후변화회
복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밸로 뛴
는 행정을 펼친 결과이다.

대전장로교회

종구 문화1동(동장 이상섭)
은 대전장로교회(담임목사 신
현복)에서 참치캔 세트 100개
(35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새해를 맞아
교회 신도들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
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기부
물품은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전장로교회는 매년 겨울

난방 취약계층에 연탄을 지원
하고 명절엔 쌀 등을 기부하
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
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을 담아 수년째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신현복 목사는 "작은 성의
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리며,
새해에는 모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기원했으면 좋겠다."라
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문화1동 저소득층에 참치캔 세트 지원



대전연세율대이치과, 희망2024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 전달 대전연세율대이치과(원장 정열, 임신록, 신상일)는 2일 대
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숙)가 진행하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대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의
월동비,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왼쪽부터) 연세율대이치과
임신록 원장, 신상일 원장, 정열 원장, 대전모금회 이은영 사무처장

대전성모병원 이환희·김영을 교수팀

세계골다공증학회 학술구연상



때 인체나 동물로부터 직접적으
로 얻어 연구하기에는 여러 제약
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이 교수팀은 실제 뼈의 형태와
비슷한 모델(Boneon chip)을 제작,
뼈의 생리와 생화학적 현상을 외부
에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기 위해 연구에 돌입했다.

이환희 교수는 "모델의 표면
처리를 어떻게 했을 때 조골세포
(osteoblast)가 유착 및 분화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조
골세포가 가장 잘 분화하는 나노/
마이크로의 기둥 및 치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구 의미
를 설명했다.

한편 이환희, 김영을 교수팀은
뼈조직을 이루는 또 다른 세포 중
하나인 파골세포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골세포(osteocyte)를 이용한
추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함께 구현해 실제 뼈에서 발생
하는 여성 현상을 이해하기 위
해 노력중이다.

송병기자



중구, 월동 모기 특별방역 실시

연중 선제적 유충구제 방역 활동으로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
는 간접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
하고 안전한 편안한 생활환경 조
성을 위해 모기 유충구제 특별방
역활동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
른 이상 기후와 난방 여건 개선
등 주거 환경 변화로 계절을 가리
지 않고 모기의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연중 모기 유충구제 방제활
동을 통해 모기 개체수를 줄이겠
다는 방침이다.

중구 보건소 방역팀은 모기유



유성구, 2024 청룡의 해 시무식 개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1월 2일 지하 대강당에서 2024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
무식에서는 창업·마을·돌봄·문화 등 4대 분야 혁신을 2024년 새해 구현운
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미래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
를 밝혔다.

●정정●

실국원장 차당회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3일
오전 10시 도
청 중회의실
에서 열리는
실국원장 차
당회에 참석.

신년 조찬 간담회



김기철 충남
도교육감은 3
일 오전 7시
30분 예산군
소재 스플라
스 리솜에서
신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
후 3시 대전 소재 대전컨벤션센
터에서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
에 참석.

신년하례회



이용록 홍성군
수= 3일 오후
4시 리젠시아
웨딩홀에서
열리는 신년
하례회 참석.

금연상담·금연보조제 무료 지원

세종시보건소

세종시보건소(소장 강민구)가 새롭
동 남부통합보건지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을 통해 새해를 맞아 금연 계
획을 세우는 시민들을 적극 지원한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전문 금연상
답사가 개인별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
하고 6개월간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
행한다.

금연기간 금단증상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
체 행동요법 및 금연보조제 사용법 등
을 알려준다.

금연 패치, 금연 껌 등 금연보조제도
무료 제공하며 6개월간 금연 성공자에
게는 지역화폐 여민전 5만 원을 지급한
다. 세종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
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
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
영한다. 또 비쁜 직장생활로 금연클리
닉 방문이 어려운 회망자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기관별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여했으나 금
연에 실패할 경우에는 대전세종금연지
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금연캠프'와 연
계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연캠프는 4박 5일간 충남대 병원
에서 전문 상담, 페어리언, 청진 등을
제공받는 전문치료형 프로그램이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도움으로 금연에 꼭 성
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세종 청년인구 31.5%… 동 지역 35~39세 최다

2023년 청년통계 결과 발표…
청년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2023년 청년통계 작성 결과 지
역 내 청년인구는 12만 907명으
로 전체 인구 대비 31.5%를 차지
했고, 거주지 및 연령대별로는 동
(洞) 지역의 35~39세가 가장 많았
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역 청년의 사회경제적 삶의 수
준 등 현황을 파악해 통계 기반의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2023 청년통계' 결과를 발표했
다.

청년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의 행
정자료와 세종시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저비용·고효율의 행정통
계로, 지난 2017년 처음 개발해 올
해 4번째로 작성됐다.

이번 청년통계는 2022년 말 기
준 세종시에 주민 등록된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
로 ▲인구‧가구 ▲주
택‧토지 ▲복지 ▲고용 ·
소득 ▲건강 등을 조사해 작성됐
다.

지역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
은 300만 ~ 400만 원 미만이
21.3%로 가장 높았다. 초등 연령
은 남녀 모두 30~34세가 가장 많

았다.
지역 청년의 주택소유자는 총 2
만 4,181명이었고 주택유형별 소
유 현황으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
았다. 지역 청년 가운데 건축물 소
유자 수는 1,897명, 토지 소유자 수
는 9,196명이었다.

지역 청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18명(25%), 장애인
등록 인구는 1,509명(1.2%)이었다.
공적연금 기입자는 국민연금 5만
62명, 공무원연금 1만 3,504명, 사
학연금 1,001명 순이었다.

청년 구직신청자는 1만 1,279명
이었고,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2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
다. 지역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
은 300만~400만 원 미만이 21.3%
로 가장 높았다.

고용보험 기입자는 3만 1,856명
이었고, 실업급여 지급자는 3,431
명이었다. 지역 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12만 556명이고, 직장가
입자 7만 4,533명, 공무원·교직원
가입자 2만 8,604명, 지역가입자 1
만 7,419명 순이었다.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치주질환,
전염병, 정신질환, 관절염, 간질환
순, 암 진료인원은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위암 순이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작성된 청년통계는 청년정책 수립
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청
년정책 수립을 위해 지표를 보완
해 매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김태선 기자

김태흠 지사, 도민 숲 조성 예금 1호 가입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예금액의 0.1% 기부… 최대 5억 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새해부터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기금 조성
을 위해 앞장섰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일 내
포신도시에 있는 NH농협은행 충
남영업부를 방문해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새해부터 출시한 '충
남도민숲 ESG 예금'에 1호로 가입
했다.

충남도민숲 ESG 예금은 지난해
7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체결한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
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출시됐다.

해당 상품은 NH농협은행 충남
본부가 예금액의 0.1%를 홍예공
원 명품화사업 후원 기금으로 기
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최대 5
억 원까지 기부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법인이며,
가입 금액은 개인 100만 원 이상,
법인 1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다.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가입 기
간은 1년(민기일시지급식)이며, 가
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NH농협
은행 충남본부 관내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충남도민숲
EGS 예금 1호 가입 후 백남성 농
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과 함께
NH농협은행 충남영업부를 방
문한 고객들에게 에코백을 전달하
며 도민 참여 숲 홍보 활동을 펼쳤
다.

도는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을 지
역 대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민 참여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사랑의
열매 등을 통해서 기부금 100억 원
을 모금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한 특판 예금상품 출시로 기부
금 모금과 더불어 도민 참여 숲에

적 2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
했다.
도는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참여
하는 민관 주도 기부 방식과 대중
스포츠(골프대회 등)를 활용한 범
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기부 문화를 다양화하고 도민 참
여 숲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
침이다.

김 지사는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대한 홍보 효과로 도민과 지역 기
업·단체의 관심도 더 커질 것으
로 기대한다"라면서 "도는 NH농
협은행과 함께 명품 홍예공원 조
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분부장은 "충남도민숲 ESG
예금 출시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조성에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
길 바란다"라며 "성공적인 홍예공
원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2024년
김진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주
도공간인 충량읍을 찾아 순국선열
과 호국영령에 대해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김하균 행정부시
장과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비롯
한 시청 간부공무원, 홍성국·강
준현 국회의원, 이연호 세종시의
회 의장과 시의원, 최교진 교육감,
보훈단체장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최민호 시장과 참석자들은 기관
별 현화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2024년 김진년 새해 미래전략수도

세종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
했다.

특히 시는 2024년 김진년 새해
사자성어를 '뜻이 있으며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의 '유지필성(有志
必成)'으로 정하고, 행정수도를 넘
어 국정운영 중추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진하는 한해로 삼는다는 각
오다.

최민호 시장은 "2024년 새해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 상황
으로 모두가 협력해 슬기롭게 해
쳐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시민의 민생안정을 핵심 가치로
삼아 미래전략수도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
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최민호 시장 "김진년 미래전략수도 조성 총력"

총령탑 참배 새해 첫 공식 일정…국정운영 중추도시 성장 매진



2024년 군정 핵심 키워드는 '자강불식'

이용록 군수, 2024년 1월 2일 신년인사회와의 간담회 통해 군정 비전 제시

"2024년은 스스로 더 힘쓰고 쉬 없이 달린다는 '자강불식'"
의 각오로 환경재민을 선도하는 미래혁신도시 실현을 목표
로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건설을 위해 종력을 기울일 것입
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청룡의 해를 맞아 2024년 1월 2일 군
청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희망이 가득한 미래도시를 실현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민선8기를 변치 않는 혁신의 정신으로 지역발
전을 선도하기 위해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 산업도시 ▲지
속발전 가능한 스마트 농어촌 도시 ▲천년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관광 도시 ▲새롭게 거듭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
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도시 ▲군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등 6대 추진 전략을 자강불식의 각오 아래 2024년 홍성 군정
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 산업도시' 완성을 위해 '내포
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성공을 발판으로 앙

커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종력을 기울이고, 내포 첨
단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와 유망 신산업 성장을
위해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완성하여 홍성군의 산
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에 힘쓰고
대규모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 농업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차별화된 품종 개발·보급 및 농업인 디지털 공간과 신활력
공유플랫폼 조성, 전국 최초 탄소감축 모델을 제시하여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어촌 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민선8기 역점 추진 중인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에
부지 매입과 KT홍성지사 이전을 해결하여 복원 속도를 내고,
2024 국제청소년캠퍼스, 제2회 글로벌 바이ек 페스티벌
개최 등 대규모 행사 추진 및 지난해 개장한 해양분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부해안 아간경관 명소화 및 홍성스카이타워
조성으로 서부해안 일대를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홍성



군 대표 관광브랜드로 육성하여 '천년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
관광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와 내포신
도시 대학 캠퍼스 설립,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건립, 종합
병원 개원 등을 추진하고 서해선 KTX 서울 직결사업, 장항선
개량사업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고 대통
령 지역공약인 K-락 디지털 스페이스와 홍성 역사권 도시개
발사업으로 원도심에 힘을 불어넣어 '새롭게 거듭나는 행

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율러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여성 복합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복잡·다양해지는 복지·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도시'를 만들고, 공중화장실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과 홍성·내포신도시 방범용 CCTV 통합구축 운영, 소아 약간 응급진료센터 안정적 운영, 전장년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 전군민 인플루엔자 무료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율록 홍성군수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로운 홍
성 미래비전을 창출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더욱 구체화하여 홍성 전체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시기적
으로도 지역발전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스마트한 군정을 펼
쳐 나가겠다."라며 "홍성군이 혁신과 상생의 도시로 우뚝 서
김진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
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율록 이용록 군수는 언론인 간담회에 앞서 오전 9시 군
청 대강당에서 직원들과 시무식을 갖고 6대 군정 추진 전략
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환 기자

<신년사>

“원도심 상권 부활과
교통 중심지 예산 조성”

최재구 충남 예산군수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진년 새해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2024년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청룡과 같이 힘찬 기운으로 더 힘차게 도약하는 예산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정목표인 '새로운 내일, 하나님



2024년 충남 테크노파크 시무식 충남테크노파크(서규석 원장)는 1월 2일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규석 원장은 "개원 25주년이 되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로, 내실을 통해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덕구,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1일 연말연시를 맞아 대전시,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날 합동점검은 국무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진행됐으며,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중리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공주소방서, 갑진년 새해 맞이 보훈공원 참배식 가져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지난 1일, 공주보훈공원을 찾아 참배식을 가졌다. 이날 류일희 서장을 비롯한 각 과(단)장 및 팀장,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순직 소방관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2024 청렴캠페인 추진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준)은 2024년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에 앞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캠페인은 우리나라 역사 속 청렴 위인과 함께하는 청렴 퍼포먼스로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순신 장군, 박문수 어사 코스튬을 하고 청렴위인의 청렴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강만희 대전보훈청장, 대전보훈단체장들과 2024년 신년참배 대전지방보훈청 강만희 청장과 임직원들이 대전지역 보훈단체 장들과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2일 대전보훈공원 영렬탑에서 신년참배를 하고 있다.



청양소방서, 충혼탑 참배로 갑진년 힘찬 출발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2일, 청양군 충혼탑 참배로 갑진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진용만 서장은 이날 14명의 간부들과 함께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9시경 충혼탑을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현화 후 묵념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등 공직자로서 국정신을 되새겼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연 1회→4회로 확대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조사와 판단기준을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t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t 이상인 사업장 등 106곳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운영하

고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전국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 일일 2282만t,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TMS 배출량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1차례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계기로 오는 4월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한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방류수 수질 기준과 판단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로 조과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안정화하는 데 장시간(10~24시간)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다. 기존 3시간 평균 수질 기준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연간 단위로 집계해 1차례 공개했

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일

일 배출량으로 비꾸고 연간 4회로

늘립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

착사업장 사회적 책임과 지방적 수

질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산소방서, 119 정책

기자단 모집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가 2024년 소방청 119정책 기자단 모집 홍보에 나섰다.

119정책기자단은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대중적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정책 및 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웹툰 인포그래픽, 모노그래픽 등 제작 가능자는 우대하며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기사 작성, 콘텐츠 제작 참여, 정책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접수는 오는 1월 12일까지 전자우편(smiley2@koreakr)으로만 가능하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 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국민권익위 "사망한 어머니 명의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토록 허용해야"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하면서 현신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권위에 따르면, 신청인 그씨는 1968년 10월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

그씨는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했고, 이에 그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그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그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그씨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현신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 내역,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그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이정복기자

충남소방, 구동철 소방정 제2대 119특수대응단장 취임

다양한 실무경험과 행정역량 비탕 특수재난 전문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기대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일 자로 제 2대 119특수대응단장에 구동철 소방정이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서천 출신인 구동철 신임 119특수대응단장은 충남대에서 화학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구파로, 1995년 소방간부후보생 8기로 소

방에 입문해 본부 감찰팀장, 태안 소방서장, 천안동남소방서장, 서천 소방서장, 천안서북소방서장, 아산 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구 단장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지휘 능력은 물론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단장은 "화생방, 불교사고 등 의 특수한 재난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비롯해 각종 특수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안전한 충남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119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화생방분석차 등 특수 구조장비를 보유한 구조 전문기관으로, 도내 대형 화재 및 화재사고 등 각종 특수재난 사고 대응을 위한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제17대 김경철 논산소방서장 취임



논산소방서는 제17대 논산소방서장으로 김경철 서장이 1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1990년 소방에 첫발을 내디딘 후 홍성소방서 방호예방과장, 소방본부 소방행정팀장·소방행정과장, 계룡소방서장, 홍성소방서장을 역임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과 행정업무수행 능력을 두루 갖춘 지휘관이며, 탁월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서장은 부서별 주요 현안 업무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김경철 서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소방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논산=김성구기자

김종우 제10대 금산소방서장 취임

"금산 안전위해 입장설 것"



금산소방서는 1월 1일 자로 제 10대 금산소방서장으로 김종우 <사진>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종우 서장은 대전 출신으로 1991년 공직에 입문해 소방본부 행정과 팀장, 소방청법감사과장 및 부여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

소방 조직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소방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32년 소방생활 동안 다양한 실무 경력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높은 신망을 받는 인물이다.

김종우 서장은 "직원과의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더 견고한 금산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현장 활동으로 금산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산=이정복기자

대전충남병무청, 2월 1일 ~ 6월 12일 · 7월 15일 ~ 12월 6일까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2월 1일부터 6월 12일, 7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5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검사 회기일 하루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www.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 공식은 신청으로 마감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곤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정해 통지서를 발송한다."며 "사전에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승병별기자

충남대, 2024학년도 정시모집 1,213명 선발

반도체융합학과, 에너지공학과 등 첨단분야 2개 학과 신설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213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1월 3일~2024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2024학년도에 반도체융합학과와 에너지공학과 등 첨단분야 2개 학과를 신설하고 첨단 인재양성에 나선다.

충남대는 기관 637명(일반전형 571명, 지역인재전형(의예과, 수의예과, 간호학과) 38명, 지역인재 저소득증정전형(의예과) 3명, 국가보용한전형 17명, 농어촌학생전형 5명, 저소득증학생전형 3명), 나군 570명(일반전형 551명, 지역인재(약학과) 13명, 지역인재 저소득증전형(약학과) 2명, 농어촌학생전형 5명, 저소득증학생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 예산 9367억원

교육부,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이공계 236억 감액

교육부가 올해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에 총 936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문사회 분야 지원 예산은 4220억원으로 48억원 증액됐으나, 이공분야는 5147억원으로 23억원 줄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올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는 총 42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8억원 증액된 규모다. 교육부는 국가의 핵심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기반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박사과정생 300명을 신규 선정해 2년간 연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학술연구교수 지원 예산도 확대해 학술 연구교수 300명을 새롭게 선정하고 5년

간 약연 4000만원을 지원한다.

2~3명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 융합 연구 지원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10개 내외의 연구그룹과 2개 내외의 연구소를 선정해 올해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새롭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억원 수준이다.

인문사회분야 대학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지난해 신설된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은 기존 5개 연합체에 대해 3개 내외의 연합체를 신규로 선정,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2024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

산은 총 51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6억원이 줄었다.

이공분야 예산은 학문균형발전지원 부분에서 대폭 감액이 이뤄졌다. 대학 내 연구전담인력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 예산은 지난해 1646억원에서 올해 946억원으로 감소했다.

기초학문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필요 분야에 지원하는 보호연구 예산은 274억 원에서 161억원으로, 지방대학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 예산은 956억원에서 542억원으로 감액됐다.

이공·인문사회분야 융복합연구를 지원하는 학제간융합 예산도 지난해 67억 원에서 올해 35억원으로 줄었다.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규모는 크게

늘었다.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 지

원 과제 수는 기존 300개에서 822개로 500개 이상 늘었다.

기존에 별도 지원이 없었던 석사과정 생을 위해선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600개 이상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연 1200만원이다.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학과·전공의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돋는 텁프(LAMP) 사업 지원단가는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학 수도 8개교에서 14개교로 늘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문 사회와 이공분야의 기초학문이 우리나라 학문 발전의 토대가 되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복기자

"모두가 주도성을 통해 정책 펼쳐야"

김지철 충남교육감, 2일 충훈탑 참배 후 전 직원 시무식 가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일 충훈탑을 참배 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무식을 통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김일수 부교육감, 각 국장, 간사관,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훈탑에 현화, 분향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충남 미래 교육의 힘찬 추진을 다짐했다.

이후 열린 시무식에서는 1월 1일 자로 도교육청에 진입한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이 상견례를 하고, 긴부 직원들

서천교육지원청, 급변하는 사회변화 대응 위해 지역과 함께 만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위원회 협의회



서천군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서천군발전협의회 김창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서천교육지원청 김병관 교육장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열었다.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위원회는 도의원, 군의원, 학부모대표, 지역 주민대표, 학교 교직원대표, 교육청 및

이정복기자

"보령교육이 보령의 미래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보령 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설정

하고 보령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5가지 정책사업과 2가지 중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보령교육 중점사업으로 첫째, '보령 독서인문교육 강화' 친구와 함께 책나들이'를 선정하여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이룸학교와 도서관 연계 독서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독서인문교육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지원단, 관촌문화체육 운영, 인문학 콘서트, 학교 안팎 인문학 교실 지원 등 학생 문화력 신장을 위한 다채로운 책나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깨끗한 오늘,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한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보령만의 특색인 '바다', '에너지', '문화재'를 주제로 한 환경 중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신규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규 저경력 교사의 학교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상담 기법과 대화, 학급경영, 학교업무 등 학교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주제별 연수를 지원하고, 보령지역 이해와 정책 지원을 위한 향토탐방 마을 교육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 신규 저경력 교사 상호 간의 소통과 보령지역 이해 증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넷째,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특수교육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미래유아교육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연수를 제공하는 온생각시스템 활용과 기초, 준결과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과 백제역

겨울방학 학습 캠프 '배움 동행' 운영

대전학습종합클리닉센터, 맞춤형 학습 캠프로 학습 공백 촤촘하게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초·중·고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1월 말까지 '배움 동행' 겨울방학 학습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 동행' 학습 캠프는 방학 기간 느슨해지기 쉬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촤촘한 학습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초·중·고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상담 및 코칭을 진행한다.

학습 캠프 참가 신청 학생들은 전문상담사의 학습표준화검사를 겸한 학습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유형 파악 후 1월 말까지 겨울방학 기간 중 학교별 상황

에 맞추어 최대 10시간까지 학습 상담과 코칭을 받는다. 10시간의 프로그램 안에는 학습동기전략, 시간관리전략, 노트필 기전략, 집중·기억 전략, 학습관리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학습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경험 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개인별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교육청 조진형 중등교육과장대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장은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촤촘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2024년 시무식 열고 힘찬 출발

최교진 교육감, 모두가 주인이 되어 일하는 태도 당부



교육, 방학에도 쉼과 배움의 과정이 함께 이뤄지는 세종교육,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새해에는 학교자치 심화 발전과 미술교육생태계 조성이 3대 전략과제를 풀어가는 길이 되도록, 우리 교육청이 매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맹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김예덕 소통담당관 등 2024년 1월 1일자 승진과 전임 직원 소개와 더불어,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8명에게 모범 공무원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종교육공동체가 세종교육에 대해 바리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은 '2024년 세종시교육청 시무식 갑진년편' 시청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안내 등을 진행했다.

시무식 종료 후에는 교육청 전 직원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2024년 새 출발을 다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온양여중,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전액 기부

본교 3학년 학생들과 교사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

공주교육지원청, 갑진년 새해 힘찬 출발



시문화체육교육, 인공지능과 가상누리터 등 인공지능 교육기술과 함께하는 수업혁신, 마을연계 주말학교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 갑진년의 마음을 전했다.

전 직원은 2024년에도 공주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류동훈 교육장은 "우리는 이제 미래 교육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 와 있고 미래는 변화의 속도와 폭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이라며, "새해에는 교육의 중심에 오롯이 학생들을 두되 새로운 교육,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기획 모두가 미래 교육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뜻을 같이하고 의지와 열정을 모아주 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관악체험 찾아오는 음악회 성황리 개최

예산초등학교 티의 모범교가 되고 있다



예산초등학교(교장 김영숙)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관악체험 찾아오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MJ(MUSIC OF JOY) 오케스트라가 함께하였고, 다양한 악기의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힐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티의 티의 실로폰의 '왕별의 비행'과 색소폰의 쇼스타코비치 월츠 No.2 연주는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이어 '아기很差', '아빠 힘내세요', '착 좋은 말', '울릉이송'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연주되자, 아이들은 따라 부르며 즐거움을 한껏 더 했다.

이번 체험 형식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악기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원드오케스트라 가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김영숙 교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한편 예산 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이러한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관악 인재를 계속해서 배출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예산=박제화기자

온양여자중학교(교장 남정옥)는 지난 11월부터 본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11월, 12월 각 한 주간 씩 두 차례로 걸쳐 교육과정부, 3학년부, 진로부, 학생회 등 다양한 부서의 협조로 운영되었으며, 2학기 기말고사를 끝으로 학습취약 시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외부 기관을 통한 진로 연계 뮤지컬

공연과 더불어 고임을 앞둔 학생들에게

아산=리량주기자

동정

여성계 신년회



오성환 당진시장
=3일 오전 8시 30분, 7층 소회의실
에서 '1월 통합공
유희의'를 주제,
오전 11시, 컨벤
션 설악에서 열리는 '2024년 여성계
신년회'에 참석.

신년 하례회



김돈곤 청양군수
=3일 오후 3시 청
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
리는 2024년 신년
하례회에 참석.



청양군 상반기 정기인사단행

청양군이 1월 1일 자로 2024년 상반
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
불어 행복한 미래'의 본격적인 성과 창
출을 위한 조직개편과 연계해 이뤄졌다.

승진 인사는 4급 1명, 5급 5명, 6급 1
명, 52명의 승진심사와 수해복구 유공에
특별승진 1명, 근속승진 3명 등 총 62명
이다.

전보 인사는 5급 이상 9명 등 135명이
며, 조직개편으로 직위나 부서명이 변경
되는 인사는 108명 규모다.

또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혁신적인 업
무성과를 낸 직원을 팀장으로 발탁하는
등 능력과 역량을 갖춘 직원을 적재적소
에 배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승진
및 팀장 보직 부여 시 다양한 직렬을 고
루 배려했다.

특히, 신설 부서인 미래전략과는 속도
감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직별, 경력, 나
이 등 연평서할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젊은 부서장과 팀장을 전진 배치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 사항은 현
행 2실 15과, 2개 직속 기관, 2개 사업소
10읍면 152개 팀에서 2실 17과, 2개 직
속 기관, 1개 사업소, 10개 읍면 148개 팀
으로 2과 증가, 1개 사업소 감소, 4개 팀
감소다.

주요 변경 사항은 2과 신설(미래전략
과, 관광진흥과과 문화체육관광과 분리),
과 명칭 변경(농업정책과→농정축산실,
산림축산과→산림자원과, 민원봉사실→
행복민원과), 공공시설사업소와 7개 면
민원팀 폐지, 기타 팀 신설과 통폐합 등
이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승진과 전보 인
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안정화에 집
중하면서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춘 인재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
을 맞췄다"라면서 "군민 만족 행정을 위
한 인사 운영을 통해 인구 5만 자도시
실현을 위해 묵묵히 전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본격 시행

태안군, 1월 1일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 원거리 군민 교통복지 증진 차원



교통약자 지원에 종력을 기울여
온 태안군이 올해 '농어촌버스 단
일 요금제' 시행을 통해 한 차원 높
은 군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다.

군은 관내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그동안의
'이원화 요금제'를 올해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 1월 1일부
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올해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성인 기준)의 요
금을 내면 된다. 그동안은 15km 이
내 1500원, 초과 시 1700원의 요금
을 내야 했다.

군은 2015년부터 이어진 이원화
요금제가 원거리 거주 군민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데다 요금을 수기

로 입력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불편
및 이로 인한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단일 요금제로
의 전환을 검토해왔으며, 지난해

의회 협의 및 태안여객(주), 대표 박
충진(과)의 협약 등 제반 절차를 거
쳐 올해 시행의 결실을 이뤘다.

요금제 변경에 따라 군민 불편

해소와 운행시간 단축, 원거리 주
민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되며, 추가
소요 예산 연간 약 1억 원(추산)은
전액 군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2023년) 기준 연간
54만 9187명의 이용객 수를 기록
한 태안 농어촌버스가 군민의 편리
한 발로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
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
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이 대중
교통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
도록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
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약자에 혜
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
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배치

당진시, 관광 여건 발맞춰 관광 서비스 질 향상 노력

당진시가 올해부터 당진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양성해 삽교호 관광지와 솔뫼성지에 추가로 배치한다.

당진시 문화관광해설사 12명(기준 9명)이 활동하게 되는 근무자는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협곡수리민속박물관 ▲심훈 기념관 ▲면천 읍성 ▲신리성지 ▲솔뫼성지 ▲삽교호 관광지(삽교호 해양테마체험관) 등 총 7곳이다.

2022년~2023년 충남 내비게이션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많은 관
광객이 찾는 삽교호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고, 2024년 당진합
덕역 개통에 대비해 솔뫼성지에 해설사를 추가로 배치하며, 당진
시는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발맞춰 관광객에게 더욱 질 높은 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관광지를 돌아보며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듣다 보면 관광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
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농식품 이용권 시범사업 5년 연속 선정

청양군, 취약계층 1400가구 먹거리 복지 증진 탄력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식품 이용
권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선정된 지자체는 전국 24개
지자체 중 청양군이 유일하다.

전국 27개 지자체가 신청해 24개 지자체가 선정된 올해 시범사
업은 충남에서 청양군과 당진시, 예산군이 추진 지자체가 됐다.
이 시범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된 것 외에 군은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1번지로서 농식품부 주관 2023년 지역 먹거리 지수평
기에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받는 등 먹거리 복지 정책
의 텁등함을 인정받았다.

군은 또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위해 연계사업으로 2021년 농축
협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2~2023년 꾸러미 배달 서비스를 도
입했다.

군은 올해 공모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400가구를 지원하는 농식품 이용권 추진계획을 제출해 사업비 3
억 4,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이다.

농식품 이용권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
선 채소, 국내산 정육, 흰 우유 등 10가지 국내산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군내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식재료 직매장, GS편
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직접 구매가 어려운 고령·거동 불편자에 대한 꿰러미 배달 서
비스와 연령층에 따른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제공한다.

청양군은 65세 노인인구가 37%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광역 돌
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외에도 아동, 청소년 등 다양
한 계층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포용적 돌
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3
곳, 요양원 1곳, 경로당 70곳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2024 갑진년(甲辰年) 신년 해맞이 행사' 성료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1일 오전 6시 50분 새해를 맞아 아산안보공
원(남산)에서 개최된 '2024. 갑진년
(甲辰年) 신년 해맞이 행사'가 성황
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아산시 시의원과 도의원, 이영수
국회의원, 이영도 아산시 경찰서

장, 오치석 아산시 노인회장 등 아
산시 주요 기관과 사회단체장이 대
거 참석했으며, 충남아산FC 프로
축구단 선수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2024년 을 시즌에 임하는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비
는 '소원지 나무 매달기', 행사를
찾은 가족·친지·지인과의 소중
한 추억을 남기는 '추억 포토존' 운
영 등 해맞이 행사 참여자들에게

의 첫 해오름 순간에 맞춰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담은 조형
물 점등 해맞이 퍼포먼스가 있었
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비

는 '소원지 나무 매달기', 행사를
찾은 가족·친지·지인과의 소중
한 추억을 남기는 '추억 포토존' 운
영 등 해맞이 행사 참여자들에게

▲1위 라비앙 ▲2위 루미너스 ▲3
위 KBZ 등 3팀이 수상의 기쁨을 안
았다.

수련관 측은 지역 청소년 동아리
의 연방 강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키로 하고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했으
며,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축제를
위해 청소년 사회자를 별도로 모집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스 콘서트
가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앞으로 이들을 위한 문화향유
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이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시키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소년들의 신나는 축제' 태안 유스 콘서트 성료

지역 청소년 역량 강화·댄스·밴드 등 다양한 무대 선보여



태안군 청소년들의 신나는 축제, '2023 태안 유스 콘서트(Youth Concert)'가 12월 30일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이번 콘서트는 관내 청소년동아리를 대상으로 공연무대의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문화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한 것으로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이
주관했으며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150여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

다. 이날 총 16팀 67명이 무대에 올
라 댄스와 밴드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안무·팀워크·매
너·완성도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주)우룡실업, 온양1동 행복기움에 후원금 100만 원 전달
(주)우룡실업(대표 이홍엽)이 지난 28일 온양1동 행복기움추진단(민간단
장 장일권, 공공단장 권태식)에 시장의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후원 결정은 지난 6일 온양1동 독거 어르신이 순수 만든 목도리를 (주)우
룡실업에 전달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이홍엽 대표는 "오늘 전달한 후
원금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만의 노하우...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새해 시무식 통해 희망 비상 다짐

백성현 시장 “2024년 더 큰 논산 더 강한 논산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원년”

습관적 관행행정 타파하고,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행정 강조

백성현 논산시장은 2024년 시무식에서 현장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2일 논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2024년은 논산시의 변화와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꿈꾸는 만큼 행동하고 이루는 길은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새해 소감을 밝혔다.

또한 “새해에는 과거 습관적 행정주의의 히를 벗어던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적 행정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시무식은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한 직원 700여 명이



새해 메시지를 담은 캘리그라피 페

포먼스,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희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 논산시는 국방군수산업도 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과 공기관 유치는 물론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2024년 2월 태국 방콕에서 논산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물론 오는 2027년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엑스포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시무식 행사에 앞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청 간부들과 함께 충령탑과 경찰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논산=김태선기자

박정현 부여군수= 3일 오후 2시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열리는 갑진년 신년교례회에 참석.



부여군 장수 어르신 세배 ‘만수무강 기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관내 장수 어르신인 김양한(남, 101세), 강갑희(여, 98세) 어르신을 각각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년 장수 어르신 세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고자 부여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다.

이날 장수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여쭙고 장수비결 등 담소를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박정현 군수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께 예우를 다하고 어르신 복지를 촘촘하게 쟁기는 것은 건강하고 따뜻한 부여 만들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물산 이성래 대표

논산시에 5천7백여만원 기부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12월 28일 오후 5시, 시청 중앙 현관 앞에서 성물산 이성래 대표가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종이 가방에 든 돈다발 57,085,00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논산시 경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선가게 성물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래 대표는 2005년부터 19회에 걸쳐 총 3억 4천 6백만원을 논산시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논산시 어려운소사이어티의 3회 회원이기도 하다.

이성래 대표는 2019년까지 기부를 단절했으나, 올해 다시 고액 기부를 재개했다. 그는 “경기 불황이 생선가게에도 영향을 미쳐 성금 마련이 쉽지 않았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손님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운영한 결과 전년도 수준의 성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한해의 소회를 밝혔다.

백성현 시장은 “이성래 대표의 송고한 뜻을 빙들어 힘겨워 하는 이들을 잘 보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성래 대표를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소중한 등불 같은 사람”이라 덧붙였다.

논산시는 이성래 대표의 기부금을 논산시가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여군 종합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달성

충남도내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기관

2년 연속 청렴 1등급 기관 498개 중 6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 1위 기관

부여군 종합청렴도 평가

<p

동정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식



최원철 공주시장=3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식 참석.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3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리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 오전 11시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보령문화원 신년 하례회 참석.

간부회의



이완섭 서산시장=3일 오전 8시 40분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 참석, 오전 10시 30분 서산시 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신년 언론인과의 대화 참석, 오후 3시 서산시 베니카아 호텔에서 열리는 2024년 신년인사회 참석.

공주시 제16대 강관식 부시장 취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목표 주요 사업 결실 보도록 노력”



강관식 공주시 부시장이 2일, 시청 대체제실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강관식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웅진체제의 친란한 역사도시이자 문화도시인 공주시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민선8기 시정 철학인 소통과 섬김, 일하는 시정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들이 결실을 맺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기업과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지속 성장의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백제문화축제 ▲금강 국가정원

(어천·죽당 지역) 조성 등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주시와 충남도, 중앙정부 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부여고등학교, 한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도 자치행정과장과 인사담당관을 거쳐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맡는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원활한 소통 능력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공주=정상범기자

홍순광 제17대 서산시 부시장 취임

“누구나 살고 싶은 서산 만드는데 전력 다할 것”



제17대 서산시 부시장에 홍순광 지방부이사관이 2일 취임했다.

시는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7대 서산시 부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국장, 직속 기관장, 읍면동장 등 100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 했다.

홍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이라는 시정 목표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서산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시장은 “서산시의 최대 현안인 서산 공항 건설, 충부권 동서횡단 철도 및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가로림

만 국가생태해양공원 건설, 국제크루즈선의 성공적인 운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시장은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만들고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시장은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충청남도 도로철도 항공과장과 건설정책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도로 건설 및 관리, 도시계획 수립, 교통정책, 지역균형발전, 주택정책 등 지역발전 주요 시책을 총괄하는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직해 왔다.

이번 홍 부시장의 취임으로 서산시의 주요 역점사업과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현안 사업들의 실현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2024년을 기회의 시간, 기회의 해로 만들자”

김동일 시장은 2일 보령문화예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공직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올 한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도출해갈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올해는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시민들 모두가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기울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가 무엇보다 유능해야 하며 부서 간의 칸막



▲ 지난 1일 이완섭 서산시장이 서산시 종합사격장 입구에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했다.

이완섭 시장, 새해맞이 서산시청 사격팀 격려

이완섭 서산시장이 1일 새해를 맞아 서산시 종합사격장을 방문해 훈련 중인 서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2024년 각종 대회와 파리올림픽 선발전에 서서의 선전을 기원하며 박종서 충남시 사격연맹 회장, 정인승 서산시 사격연맹 회장, 박신영 서산시청 사격팀 감독 등과 함께 서산시 종합사격장 입구에 기념식수를 하고, 친필로 작성한 ‘一發命中百發百中’ 표지석을 설치했다.

이후 이 시장은 선수들을 만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산시청 사격팀은 2023년 역대급 성적을 달성하며 서산시의 스포츠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국가대표 5명(오정은 유현영, 이은서, 정미라, 황윤삼)을 배출해 향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2개,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 11개(금 8, 은 2, 동 1)를 획득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하며 2023년 시즌 총 98개(금 43, 은 23,

동 32)의 메달을 획득하는 폐거를 이뤘다.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 선발을 목표로 더욱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 선발전이라는 중요한 경기에는 민족 춤처럼 몸 관리와 훈련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라고 “사격팀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시스포츠 위상을 떨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금산군, 올해 주요 정책 가시화되는 중요 시기·역동적 사업 추진

온고지신 각오 5대 목표 달성 총력

금산군은 올해 민선8기 출범 3년차를 맞아 온고지신의 각오로 군정 5대 목표 달성을 나선다.

주요 정책들이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기로 맞아 각종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5대 목표를 살펴보면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도시 △세계속의 인삼도 △신뢰받는 희망군정 등이다.

찾아오는 매력도시를 위해서는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아토피지유마을 확장에 나선다.

인구를 유입하고자 금산을 험프 치유 중심도시로 발돋움시키고 비호산 도심공원 확장, 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금산세계인삼축제와 삼계탕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관광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도 꾀한다.

중흥하는 경제도시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한다.

건강힐링 행복도시는 보건소 신축을 통해 국제적 명성의 보건·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첨단의료시설로 수준 높은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 거점시설인 금산행복드림센터를 조성하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와 어르신 청춘카페 문

영지원도 예정됐다.

장애인 재활자립 및 평생교육에 도 힘쓰고 통합돌봄 복지미을 통합복지 및 험프 치유단지를 조성하고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된 삶을 위해 금산형 맞춤 복지 프로그램 희망나눔곳간과 빨래방도 확대한다.

이율려 군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 생활 향유를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축구 면 수영장, 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 확장, 궁도장 이전 등 인프라 확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세계인삼수도 분야는 인삼농가의 어려움 해소와 현대인들의 새로운 인삼약초 수요 변화에 맞춰 고품질 인삼과 약초 생산을 위한 GAP인증 확대지원, GAP인삼 선별장 및 저온 창고 구축, 자동화 가공시설 지원 등에 나선다.

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우리 인삼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 몽골, 인도 등 아시아권의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미국, 중국, 유럽권의 신 흥시장 진출에도 과감히 도전할 방침이다.

또 군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하는 미래정책 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선도하는 자원봉사 활동 장려, 유관기관 간 긴밀 협력체계 구축에도 총력을 다한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공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며

세계인삼수도 금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삼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세계인삼정보센터 건립도 추진해 글로벌 차원의 인삼 정보 데이터 구축 및 관광·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청년농업인 동반성장 지원체계 구축 및 AI·ICT 융복합 기술을 도입한 미래 복합 디지털 농업교류관과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가칭 ‘한국 GAP 센터’ 금산 설치 등을 추진한다.

신뢰받는 희망군정에는 군민들이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군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군수실을 활용해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추진한다.

또 군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하는 미래정책 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선도하는 자원봉사 활동 장려, 유관기관 간 긴밀 협력체계 구축에도 총력을 다한다.

연길북 기자

우/리/동/네

제40대 심완보 금산부군수 첫 일정 시작



제40대 심완보<사진> 금산부군수가 2월 첫 일정을 시작했다.

심 부군수는 이날 박병언 금산군수, 기관장, 금산군의회 의원 등과 친목의 종, 충령사, 유파고지 충혼탑 등을 방문해 순국선열에 참배했다.

심완보 부군수는 “금산은 충절의 고장으로 청정의 자연과 수려한 경관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지역”이라며 “그 동안의 행정 경험과 노하우로 세계를 향한 도전, 금산인삼 세계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 부군수는 충남 보령시 출생으로 한남대를 졸업하고 1991년 공직을 시작해 충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정복 기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보령시, 26일까지 연납신청 · 31일까지 납부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연길북 기자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041-930-3666)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금산군, 2024 갑진년 금산해맞이 행사

금산군은 지난 1일 금산인삼엑스포광장에서 2024 갑진년 금산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산청년회의소(회장 한재호) 주관으로 금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다불 밟히기를 시작으로 퓨전국악 공연, 새해복 담수, 소원지 쓰기, 새해 인생기원제, 해돋이 보기 등이 진행됐으며 금산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따뜻한 어복과 면복을 나누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떡담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나눴다.

행사에 참석한 박병언 금산군수는 “올해는 승천하는 용의 해 갑진년”이라며 “모두 높은 뜻 펼치시고 기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갑진년 새해 힘찬 출발 다짐

순천향대 나노화학공학과 임정균 교수팀

새로운 약물접합체 개발 대장암 치료에 새 지평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나노화학공학과 임정균 교수팀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표적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접합체(drug conjugate)를 개발해 대장암 치료에 새 지평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임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해 기존에 널리 쓰이는 항암제인 캠토테신(camptothecin)을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게 돼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연구팀은 암세포 침투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iRGD 웹타이드를 활용하여 항암제를 환·증양 부위에 약물의 농도가 낮게 분포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항암 약물은 온몸을 돌며 건강한 정상세포도 손상시키며 ▲메스꺼움, 피로, 감

염 ▲세포 및 모낭의 손상으로 인한 탈모 ▲구강염, 치아 문제, 소화기 계통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들러, 암세포에 대한 약물의 침투 농도가 낮아서 환자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할 필요가 생겨 약물을 내성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임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해 기존에 널리 쓰이는 항암제인 캠토테신(camptothecin)을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게 돼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연구팀은 암세포 침투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iRGD 웹타이드를 활용하여 항암제를 환·증양 부위에 약물의 농도가 낮게 분포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iRGD 웹타이드와 캠토테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링커(linker)와 iRGD 웹타이드-캠토테신으로 이루어진 새

로운 약물접합체를 개발했다.

이러한 약물접합체는 기존 약물 단독보다 대장암 세포에 30분 내로 빠르게 투과하였고 대장암 세포 안으로 약 30배 이상의 농도로 침투하여 대장암 세포의 사멸을 효과적으로 발생시켰으며, 약물 접합체를 정상 세포에 주입했을 때 항암제가 정상세포 안으로 침투를 못 해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았다.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로부터 이종이식된 대장암 쥐에게 약물접합체를 20일 동안 투여한 결과 기존 약물접합체에 의한 증양 억제율(tumor inhibition ratio)이 약물단독 투여인 경우보다 20%에서 45%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새로운 약물접합체가 동물실험에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

교신저자인 임정균 교수는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약물접합체를 사용할 경우 환자는 기존 항암제의 부여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대장암 환자의 약물에 대한 부작용과 내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향후 대장

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의 연구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복막 전이 치료에도 확대하여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대장암 치료를 위한 종양 유도 웹타이드 iRGD-접합체의 캠토테신의 종양 내 축적의 향상(Tumor Homing Peptide iRGD-Conjugate Enhances Tumor Accumulation of Camptothecin for Colon Cancer Therapy)’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IF: 6.7, 약학 분야 상위 11% 내, 2022 JCR 기준) 12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한편, 이번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약물접합체의 설계와 개발은 순천향대 나노화학공학과 임정균 교수팀이, 항암효과 측정 및 동물실험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전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아산=리랑주기자



충남대 '2023 우수강의 교수' 선정

충남대는 1월 2일,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미홀에서 2024년 시무식 개최와 함께 최우수강의 교수 4명과 우수강의 교수 6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홍성군의회, 군민과 함께 미래 여는 의회 위한 갑진년 시무식 개최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근) 의원 일동은 갑진년 새해 1월 1일 백월산 영신 고천대 제에 참석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새해맞이를 시작으로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올해의 의정활동을 다지고자 홍주의사총과 충령사에 방문하여 참배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당진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2년 연속 충청남도 내 시 단위 중 가장 우수 등급

당진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한 결과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우수)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청렴 체감도'와 반부패 노력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평가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당진시는 민원인 등을 상대로 한 '청렴 체감도' 평가에서 798점, 조직 내부의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848점을 받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체감도 점수를 살펴보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체감도 점수는 전국 75개 기



진하면서 개청 이래 최초로 부패 개혁 기구인 '반부패 청렴 추진단'을 구성해内外부 부패 차단에 종력을 기울였다.

기관 내 불법리한 관행 개선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 부서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고, 소극 행정 극복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대민행정 일선 부서를 모두 순회하며 '청렴·친절 문화 확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제13대 이민수 본부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지역본부는 이민수 신임 본부장이 취임하여, 취임식 행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민수 본부장은 충남 논산출신으로 남대 전고와 충남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2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예산지사 농지은행부장, 농지는 행처 농지사업부장, 인사복지처 노사협력부장, 인사복지처 인사부장, 예산지사장, 총무 인사처장을 역임하였다.

이민수 신임 본부장은 “공사가 농어업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공사의 주 고객인 농어업인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농어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기 위해서 청렴한 경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전만권 당협위원장 '아산의 노래' 출판기념회 개최



전만권 국민의 힘 아산은 당협 위원장이 오는 6일 14시 30분, 아산 디비인밸리 아산시 순천향로 623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날 '아산의 노래'라는 서적을 발간한 전만권 위원장은 “지난 34년간의 공직생활 속에서도 늘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고향 아산을 그리워했으며 그간 절한 마음이 책속에 담겨져 있다. 또한, 본인 삶의 진솔함을 책에 담아 꿈과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저 전만권이 부르는 '아산의 노래'를 함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초대의 인사를 전했다.

이 책에는 도시행정·재난안전·정책 수립 등의 행정 전문가인 저자의 모습을 각 분야에서 만난 동료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특히 포항지진 사태 때 현장 지휘를 지켜본 동료들의 생생한 인터뷰도 들어 있다.

아산=리랑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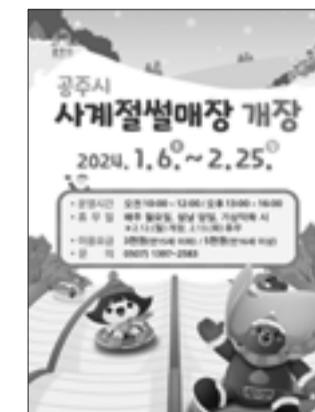
복기왕 예비후보, 지지자들과 해맞이 및 현충사 참배
2024년 갑진년 새해 복기왕 예비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해맞이 행사 참석과 현충사 참배로 첫날을 열었다. 복기왕 예비후보는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남산에 묵인 아산시민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후 아산시민·지지자들과 함께 현충지를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22대 총선 승리'라는 글을 남겨 다가오는 제22대 총선 승리에 대한 강한 결의를 다졌다.



대전둔산초, 2023 학교체육 활성화 유공으로 부총리 표창
대전둔산초등학교(교장 박종용)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2023 학교체육 활성화 유공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2021년에 이은 경영사이다.

공주시 '사계절 썰매장' 1월 6일 개장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시 이용료 1천원 할인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금학생태공원 사계절 썰매장을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사계절 썰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며 매시간 50분 운영 후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은 휴장하는데 설 명절 대체휴무일 2월 12일(월요일)은 개장하고 2월 13일(화요일)에 휴장한다.

사계절 썰매장은 16세 이상은 5천 원, 15세 이하는 3천원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열음썰매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온누리공주시민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시 천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을 고려해 7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썰매장 이용은 제한되며 10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국가철도공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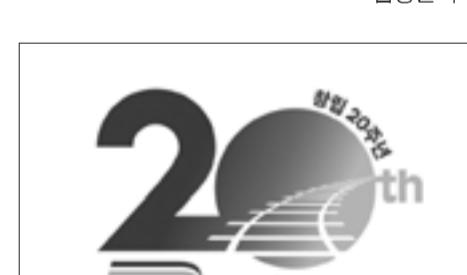
'기후변화 위기 시대, 철도 역할 확대' 강조



국가철도공단이 사장 김한영은 2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전 본사 사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우리나라 철도를 건설하고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철도부기관으로 2004년 1월 1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 건설·시설분야가 통합되며 설립됐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호남(오송~광주송정)·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를 성공적으로 개통하며 대국민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에 기여했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서울~부산은 기존 4시간 이상에서 2시간 30분으로, 서울~광주는 기존 3시간 이상에서 1시간 40분으로



맞춰 철도수송분담률을 여객부문 40%, 화물부문 17%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27개의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올해부터 이행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공단 CI를 구성하는 색상과 철도 이미지를 활용한 기념 엠블럼을 공개했다. 엠블럼은 대한민국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달려온 공단의 궤적을 형상화했으며, 한 해 동안 각종 홍보물, 대외 행사 등 창립 20주년 홍보에 대내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한영 사장은 창립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은 20년 전 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혁신을 이끌었던 것과 같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의 지속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병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이장우 시장, 보훈공원·대전현충원 참배로 새해 일정 시작
이장우 대전시장은 1월 2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대전 보훈공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히생을 기리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김태훈 지사, 새해 맞아 충혼탑 참배
김태훈 충남도지사는 2일 갑진년 신년을 맞아 충남보훈관 충혼탑을 참배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지사와 도 간부 공무원, 도지부 9개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전 신년 참배는 국기에 대한 경례, 현화·분향, 북념, 방명록 작성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충혼탑 참배로 김진년 힘찬 출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김진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홍성현 1·2 부의장, 상임위원장들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과 의회 사무처 간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산시의회, 2024년 시무식 개최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2일, 다목적 회의실에서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및 의원의 신년 인사, 떡케이크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밭대, 2024년 시무식 개최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2일 교내 아트홀에서 교직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정부포상 및 모범직원 표창 등 시상과 함께 오용준 총장이 신년사를 전했다.



대전대학교 2024년 시무식 개최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29일 대학 30주년 기념관 하나컨벤션홀에서 남상호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전 구성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대전폴리텍대 메타버스콘텐츠과·인공지능과 재학생

KAIST-타대학 SW 멘토링 프로그램 표창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학장직무대리 공병채)는 지난 12월 27일 메타버스콘텐츠과(학과장 이종탁) 및 인공지능과학과장(한의섭) 재학생이 KAIST-타대학 SW 멘토링 프로그램 성과보고회에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AIST SW교육센터에서는 SW 중심대학사업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프로그램 중 타대학 SW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PP(Microsoft Professional Program) 플랫폼을 통한 교육지원 교류협력을 한국폴리텍IV대학 등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 메타버스콘텐츠과 권혁준 교수, 인공지능과 이



명희 교수, 클라우드보안과 최상용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본교 인공지능과 박정웅 학생과 메타버스콘텐츠과 이이원 학생이 KAIST SW교육센터장(박두환 교수)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 확산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본교 클라우드보안과(2024학년도 신설) 최상

용 교수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SW중심대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AIST 박두환 SW교육센터장은 2024년에도 지역 내 대학 간 SW 인재양성 협력과 상호 교육 가치확산에 힘쓰고 그 지속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채 학장직무대리는 '지역

이정복기자

서산소방서, 제22대 김상식 서장 취임



김상식 신임
서장이 1월 1일부로 서산소
방서 제 22대
서장으로 취임
했다.

1987년 공직
에 입문한 김상식 서장은 ▲천안서
북소방서 방호예방과장 ▲금산소
방서 현장대응단장 ▲소방본부

서산=김정한기자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 구급팀장
▲태안소방서 소방서장 ▲소방본부
부 예방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상식 서산소방서장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직의 결속력
을 다지며,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적
극적인 현장대응으로 안전한 서산
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신성대학교 제6대 총장 서명범 박사 취임

시무식 겸한 취임식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명문사학" 강조



신성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서
명범 박사가 취임했다. 이날 취임
식은 시무식을 겸해 간략하게 진
행했으며 학교법인 태운학원 정
원호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감
사님을 비롯한 신성교육가족 전
원이 참가했다.

특히 신성대학교 설립자이신
故 太川 이병하 박사의 배우자인

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주
문서 산업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지역 거
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명문사
학으로 동문 4만 명 이상을 배출
한 당진지역 최초의 대학이다.

서명범 박사는 취임사에서 "설
립자이신 이병하 박사님의 건학
이념을 받아들여 신성교육가족과

함께 대학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를 위해 솔선수범 하겠다"라
며 "대학의 현 상황에 대해 냉철
하게 판단 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에 대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
한 능동적 변화를 이끌어 대학 발
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서명범 박사는 고려대학교 경
영학 학사, 미국 오레건대 교육학
석사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교
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또한
고려 대 4학년으로 재학 중인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9
년 충북교육청 근무를 시작으로
교육부 평생직업 교육국장, 충남
교육청 부교육감, 중앙교육연수
원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2020년부터 신성대학교 행정부
총장직을 역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모자보건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아산시가 2023년 모자보건사
업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2023년부터 산모와 아이
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
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후관리
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
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충남 최초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에서 선정돼
임신부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건
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신전 예비엄마 검
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
금 지원 ▲다자녀맘 산후 건강관
리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건강한 임신 및 출

산·양육을 위해 임신 전부터 출
산 후까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
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시 보건 관계자는 '아산시를
'아기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출산과 양
육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
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겨울방학 맞아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관' 운영

초등학생 대상 일일캠프로 구석기인의 예술 활동 체험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겨울방
학을 맞아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관'을
운영한다.

이번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
관'은 '예술가 석장이의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주제로 오는 1월

프를 통해 참여자가 구석기인들
의 예술 활동을 체험하면서 구석
기 문화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인사

■ 대전상공회의소

- ▲ 총무팀 부장 전용필
- ▲ 경제조사팀 부장 김종호
- ▲ 기업서비스팀 차장 정명정
- ▲ 기업서비스팀 대리 김진우
- ▲ 기업서비스팀 주임 염주섭
- ▲ 총무팀 주임 김민수



시의 향기



고안나 시인의 '詩냇물'

오녀산에 솟는 해

오녀산정 뚫고 오르는 아침 해 속에
세발끼미끼 날갯짓하며
푸들 푸들 날아오른다

고구려의 심장 오녀산
비류수강이 굽어보이고
먼 산맥들 일제히 환호성이다
바람도 쉬 오르지 못하는 병풍 절벽
허리 굽은 노송은

주몽의 사람들 기억이라도 할까

웅대하게 펼쳤던 민족의 혼
광활한 만주별관 달리던
말발굽 소리 아득하여라
천지 속에 고여 있는
고구려인들의 넉넉한 웃음소리
힘차게 긴저 울리는 아침
우뚝 솟아라 해야!

*오녀산: 주몽이 대고구려를 건국한 만주 땅, 환인현의 고구려 제1 도읍지

▶ 시작 노트

지난 날 동북삼성 요녕성 환인현에 위치한 오녀산에 올랐다. 주몽이 대고구려를 건국한 만주 땅 환인현의 고구려 제1도읍지, 오녀산정에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통해 민족 혼의 부활을 꿈꾸어 보았다. 말로만 만주 땅이 우리의 땅이니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니 할 것이 아니라, 이순신장군이 한산 섬에 올라 민경창파 굽어보듯 오녀산 정상에 올라 만주 땅을 굽어보시라.

시의 향기



백성일 시인의 '바람이었다'

계묘(癸卯)년을 보내면서

쉼 없는 세월이 냉정하여
푸른 청룡이 검은 토키를
산속으로 쫓아버린다

내 삶속에서
다시 계묘(癸卯)를 만날 일은
내 생각이 끝날 때까지
기억 속에 있을 것이다

시(詩)가 있는 삶을 경험하고
수많은 인연들 만남을 위하여
헤어짐을 생각하는 동행들
언제나 헤어짐은
아쉬움과 슬픔이 마음 누르지만

새로운 것은 설렘 있고
가는 해와 오는 해가
서로 쓸어안으며
또 다른 행복이 기득한
푸른 세상 속으로,

▶ 시작 노트

계묘년 검은 토키를 보내고 또다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한다. 지난해를 추억하며 새해에는 푸른 청룡의 해, 푸른 세상 속으로 행복한 한 해를 설계한다.

기고

K가 가진 마법의 힘, 저작권 보호에 달려있어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었다.

저작권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문화예술산업계를 포함한 우리 산업 전반에 큰 과급효과를 미친다.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류의 열풍으로 유발된 경제 효과가 37조 원, 고용 창출 인원은 1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 이 있으니 바로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다.

누구나 비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권리자들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구성되었고 해당 사이트의 자진 폐쇄, 유사 사이트 등장 등 일련의 사태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웹툰협회에서는 저작권 분쟁으로 세상을 등진故이우영 작가의 기일을 '민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필자는 올바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7월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을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 발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근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문체부가 중

심이 된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 사이트 신속차단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결국에는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콘텐츠 제값 치르고 사용하기'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4년, 문체부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추진했던 적이 있다. 인성기, 박종훈을 비롯한 많은 유명 배우가 참여한 이 캠페인의 서약자 수는 62만 명을 돌파했고,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짜트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아니라 최근 웹툰협회에서는 저작권 분쟁으로 세상을 등진故이우영 작가의 기일을 '민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필자는 올바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제값을 치러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할 경우 명백한 법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민화협회의 민화기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한컷 웹툰'을 누리소통 망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그리고 각각으로 진행되던 캠페인의

통일성과 파급력을 제고하기 위해 9월 8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로운 슬로건과 BI를 소개하고 대국민 소통 계획을 발표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향후 보호원은 '공모전',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MZ세대 등 미래 창작자가 저작권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권리자 단체와 함께 제작한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직·간접 광고 등의 형식으로 국민께 전달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각 나라의 저작권 및 사법 당국과 협동세 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민간 단체와도 공동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에 다음은 없다. 독보적 매력의 K-컬쳐 시대에, K가 가진 마법의 힘은 저작권 보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콘텐츠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는 콘텐츠 창작자의 창의성, 상상력과 그들만의 간접성은 저작권이 올바로 보호되는 환경에서 꽂힐 수 있다. 보호원은 이런 환경 마련을 위해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이 '다음에…' 가 아니라 '비로 지금부터!'로 전환 되길 기대해 본다.

매하고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수녀사 범종각에서 새해를 알리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 티종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2월에는 갑진년 새해의 힐링을 다짐하기 위해 군청 축사 흘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

격적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최재구 예산 군수는 "갑진년을 맞아 군민과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처럼 훌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내일, 하나님은 예산"을 만들어나가는데 군민과 직원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예산군, 2024 갑진년 새해 '청룡'처럼 힘차게 열다

예당호 해맞이 · 충령사-충의사 참배와 신년티종식 · 시무식 등 개최

예산군은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청룡'과 같이 힘차게 열었다.

군은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7시부터 예당호 수변 무대 일원에서 온 군민과 함께 모두의 발전과 안녕, 화합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최재구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새해를 맞아 충령사, 충의사를 참

격적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최재구 예산 군수는 "갑진년을 맞아 군민과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처럼 훌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내일, 하나님은 예산"을 만들어나가는데 군민과 직원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사설

국가적 난제 함께 극복하는 새해 되길

게 아는 정치인이 다시는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국가적 난제들이 겹겹이 놓였다.

좌우로 갈라진 채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는 여야 정치권, 복잡한 국제 정세와 세계경제 한파 속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내 경제,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경색된 남북 관계 등 산적한 난제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이지만 어려움 속에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민생과 국가 경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 여러 악재들로 앞날을 가늠조차하기 어렵다.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우리 사회는 심화하는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저출산 · 고령화 현상 등 계속해 어두운 전망 일색이어서 새해를 맞는 기대보다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더욱이 올해는 총선 정국으로 인해 국민이 거는 기대와 더불어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염려 또한 끝 수밖에 없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이기도 하다. 국민은 여야가 힘을 합쳐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 공존과 번영을 주구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지만, 정권이 바뀐 지 2년 가까운 지금까지도 국분은 분열된 채 나라가 온통 부재중인 정치 현실에 훠여 훈돈이 기라앉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 과반수를 국민의힘이 얻으면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달성되는 셈이고, 현 정부는 나라를 이끌어 갈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국민 과반이 현 정권을 불신한다는 의미이니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된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다. 이처럼 중대한 선거지만 국민들 공감대와는 무관하게 여야는 정쟁에 골몰한다. 저마다 해법을 제시 하지만 아진인수(我津田水)식 주장일 뿐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불과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거대 양당의 구체적인 공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말만 앞세우고 국민을 우습

진이 주요 근거다.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 지정학적 긴장이 '코리아 리스크'를 가중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가치 사슬을 높이면서 자국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어 우리에겐 위협이다. 특히 중국의 핵심 분야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인데, 이는 삼성 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수출 주도 정책 개발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미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전통적 동부아수출 구조를 벗어나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마당에 수출 호조세가 또다시 시들해져선 안 될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다른 이슈들을 빼아들이기 좋은 시기다. 다만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있듯이 수출 정책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수출로 쌓은 재화로 '부국'을 이루고, 제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를 살리는 '안민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다.

갈림길에 선 우리 경제, 수출 강국 위상 찾는 신년 돼야

지난달 우리나라자는 109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한 반면 미국에는 113억달러 상당을 팔아 치웠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미 수출 규모가 중국을 제친 것이다. 중국 위주의 동북아 무역 구도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지난달은 또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이루면서 7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주력 제품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내년 수출 전망도 밝다. 주요 수출 품이 업사이클에 진입했고 하반기 성장세가 갑자기 고꾸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는 시각은 없지 않다. 지난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제외하면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2023년 2.9%에서 2024년 2.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판테온 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한국 수출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한 회복세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글로벌 수요 부

진이 주요 근거다.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 지정학적 긴장이 '코리아 리스크'를 가중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가치 사슬을 높이면서 자국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어 우리에겐 위협이다. 특히 중국의 핵심 분야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인데, 이는 삼성 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수출 주도 정책 개발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미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전통적 동부아수출 구조를 벗어나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마당에 수출 호조세가 또다시 시들해져선 안 될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다른 이슈들을 빼아들이기 좋은 시기다. 다만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있듯이 수출 정책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수출로 쌓은 재화로 '부국'을 이루고, 제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를 살리는 '안민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다.

외부 편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현정
전화안내 042)538-3030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등록번호 : 대전기 00017
회장 김성구
기사제보 042)538-1601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화장 042)538-1600
편집인 김성식 · 김종복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료 월 1만 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1월 3일 수요일

대전투데이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대전투데이

후 원 |

한국장례인고교육총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생리콜란
대표이사 김경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 주식회사
www.vktech.co.kr

(주) 제이콘
JCON

충청환경에너지(주)

주식회사 레일웍스
CONSTRUCTION & MAINTENANCE

INSGREEN
주식회사 인스그린

More than Chemistry
롯데제과제빵

Hanwha

TPE
Technopark

대생리콜란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성개발산업

에이치디포장건설
주식회사